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51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Music concert

데뷔 30주년... '보컬의 신' 이승철의 발자취

●이승철 '무궁화 삼천리' | 7월1일 오후 8시·2일 오후 7시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라이브의 황제' '보컬의 신' 등으로 불리는 가수 이승철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콘서트.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변하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해온 이승철은 이미 중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공연하며 '월드투어'의 황해를 시작, 5월부터 국내 투어에 나섰다. '무궁화 삼천리'라는 제목에서 짐작되듯, 이번 전국투어는 '대국민 콘서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철은 전국투어 기간 유료 관객에게 신곡 '일기장'이 담긴 라이브 CD를 선물로 증정한다. '일기장'은 유명 프로듀서 용감한형제와 작업한 곡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승철은 "두 시간 이상 버틸 만한 체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의 1544-1555.



남심을 대변하는 목소리 나윤권의 감성 콘서트

●나윤권 '세상 모든 노래' | 7월2일 오후 6시·3일 오후 5시 | 서울 서교동 롯데카드 아트센터

'감성 발라드' 나윤권의 소극장 콘서트. 나윤권은 메가 히트곡은 없지만 '기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심장소리'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등 사랑을 잃은 남자의 쓸쓸한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로 마니아 팬층을 형성했다. 이로 인해 나윤권의 공연에 남성 관객이 많이 찾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진다. 이번 소극장 콘서트에서 나윤권은 '세상 모든 노래'라는 주제 아래 자신의 히트곡을 비롯해 보편적 감성을 담은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관객을 가까이 두고 노래할 이번 공연에서 나윤권은 미리 관객에게 '특별한 신정곡'을 접수받아 이를 들려준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 주제가 R&B로 부르는 식이다. 또 관객과 함께 듀엣곡을 부르는 순서도 마련한다. 문의 1544-1555.



정준영밴드가 응원하는 찌든 일상에서의 탈출

●'드럭 레스토랑=정준영 밴드 라이브 인 서울' | 7월29일 오후 8시 | 서울 남산동 블루스퀘어

'슈퍼스타K' 출신 정준영이 이끄는 '정준영밴드'가 밴드 이름을 '드럭 레스토랑'으로 바꾸고 처음 펼치는 공연. 이번 투어를 통해 '미스태이크' 등 5월 발표한 싱글 '드럭 레스토랑' 수록곡은 물론 기존의 히트 넘버들과 정준영의 솔로곡도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찌든 일상 속의 '치유'와 '탈출'의 감성을 풀어낼 예정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유희한 시간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8월 27일), 광주(9월 24일), 대구(10월 22일)로 투어를 이어간다. 문의 02-563-0595.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새 앨범

●제이크 버그 '온 마이 윈'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더 겿어웨이'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크 버그의 새 앨범. '온 마이 윈'은 제이크 버그의 고향인 노팅엄에서 '온 마이 윈'의 의미로 쓰이는 속어로, 그가 처음으로 모든 노래를 작사·작곡했다는 의미다. 이번 앨범엔 블루스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타이틀곡 '온 마이 윈', 평기한 그루브에 힘입어 비트를 담은 '김미 더 러브', 서사적인 팝 코러스의 소울 발라드 '러브, 휴, 앤드 미저리' 등 총 11곡이 수록됐다. 제이크 버그는 "음악적으로 색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다.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국내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유니버설뮤직.



올해 '지산 밸리락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14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그래픽 최우수 록 앨범 후보에 오른 전작 '아이 위드 유'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정규앨범이다. 프로듀싱은 전작까지 6장의 앨범에서 함께했던 릭 루빈 대신 최근 떠오르는 프로듀서인 데인저 마우스가 맡았다. 밴드 특유의 흥과 에너지를 후버 파는 듯한 역동적인 베이스 라인이 돋보이는 첫 싱글 '다크 너세서티스', 춤을 추는 베이스와 영롱한 기타가 인상적인 두 번째 싱글 '더 겿어웨이' 등 밴드가 자랑하는 13곡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음악이 담겨 있다. 유니뮤직.



뉴스디자인 | 김철조 기자 minigran@donga.com

Biz gallery

대상 청정원, 전주식비빔밥 출시

대상 청정원이 '밥물이다르다 전주식비빔밥(사진)'을 출시했다. 진한 국내산 사골 육수로 정성껏 지은 밥에 신선한 국내산 생 취나물과 당근, 양파 등 각종 야채를 푸짐하게 넣고, 맛있게 매운 볶은 고추장 소스와 고소한 참기름을 함께 구성했다. 정통 전주식 비빔밥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제품은 1인분씩 따로 포장되어 있어 보관 및 사용이 편리하다. 제품 포장 위쪽을 뜯어 팩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전자레인지 용 용기에 옮겨 담아 랍을 씌운 후 조리하면 된다.



르노삼성, '캡처 라이프' 캠페인

르노삼성자동차가 총 4팀의 QM3 유럽 원정대를 선발해 트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 에디터와 유럽

4개국을 돌며 QM3의 유러피안 감성을 전하는 '캡처 라이프(Capture Life)' 캠페인을 진행한다. QM3 원정대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각 1팀(2인)씩 지정된 국가를 4박 6일간 여행하며 QM3의 유럽 감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의 형태로 나온 콘텐트는 트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 8월~11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아트 테마로 진행될 첫 번째 영국 투어를 위한 1차 서류접수는 26일까지 받는다. 7월 1일 2차 인터뷰 후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볼빅, 골프용 기능성 선글라스 선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은 스포츠용품 업체 한국OGK와의 협업을 통해 골프 및 아웃도어 스포츠활동에 적합한 선글라스 4종(사진)을 선보였



다. 골프전문 선글라스는 골프에 특화된 컴포트 그린 브라운 렌즈를 장착해 사물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여성용은 렌즈 곡면을 얼굴형에 맞춰 편안한 피팅감을 제공한다.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패션형 모델은 일반 렌즈보다 광학적 특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 렌즈를 사용했다. 기능성 맞춤형 선글라스는 템플과 러브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삼립식품, '바나나크림 크로와상' 첫선

삼립식품이 '바나나크림 크로와상(사진)'을 출시했다. 동그란 형태의 크로와상 번 사이에 부드러운 바나나크림과 상큼한 후루즈 카테일을 넣어 만든 색다른 형태의 크림 샌드위치다. 바나나크림 사이에 초코크런치가 들어 있어 달콤함과 씹는 즐거움을 더한 것이 특징이



다. 삼립식품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크로와상 번과 바나나크림을 사용해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샌드위치다. 커피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드앵글, 슬림 원피스 골프웨어 출시

와이드앵글은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골퍼들을 위해 슬림한 라인이 돋보이는 원피스 골프웨어(사진)를 출시했다. 민소매 미니스커트 형태로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며, 휴가지 또는 일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1석3조의 '레주얼(Leisual)' 아이템이다. 플라워 패턴 니트 원피스는 스웨덴 디자이너 앤 로타가 디자인한 꽃 패턴을 적용해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땀 흡



수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면 소재를 사용했다. 원피스와 별도로 착용할 수 있는 속바지는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준다.

'스파이더 리미티드' 첫 공개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세계랭킹 1위 제이슨 테이에게 영감을 받아 개발한 '스파이더 리미티드' 퍼터(사진)를 내놓았다. 이 퍼터는 제이슨 테이가 PGA 투어 RBC헤리티지에서 처음 사용한 제품으로, 레드와 투어 레드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됐다. 헤드는 프레임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 무게중심을 헤드의 주변으로 효과적으로 분배시켜 높은 관성모멘트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헤드 페이스에는 테일러메이드의 독자기술인 '밀드 퓨어 볼' 인서트를 적용해 방향성과 직진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